

## 『茉莉書舍』 開店에 부쳐

안승택  
박사과정 99

### 1.

한 시절 전의 우스개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서자로 태어난 설움을 견디다 못한 홍길동, 형의 암살기도를 피한 후 아버지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

“소자,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아버를 아비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니...”

처음에는 막무가내인 길동을 점잖게 타이르던 아버지, 길동의 거듭된 읍소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짜증이 났는지,

“그럼 오늘부터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그러자 길동 왈,

“호부호형을 하면 뭐 합니까. 아버를 아비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짜증이 난 아버지 왈,

“왜 그러느냐. 오늘부터 호부호형을 허락한다 하지 않느냐.”

이에 더욱 설움이 복받친 길동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호부호형을 하면 뭘 한단 말입니까. 아버를 아비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사오정 시리즈의 홍길동 버전이라고 할만한 이 이야기는, 그러나 사오정 시리즈가 세상에 나온 시점보다는 그 기원이 앞섰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다. 기원 여하간에, 논집의 머리글을 이 썰렁한 우스개로 시작한 이유는, 논집을 펴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오정 홍길동’과 겹쳐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원 논집을 내기 위한 예산 중 일부를 학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선생님들께 제안서를 올렸다. 그런데 결과는 두 번 다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처음 올렸을 때 이야기되었던 것은, 우리가 듣기로는, <선생님들의 경험 상 대학원생들이 제출하는 기말보고서나 논문계획서 따위가 인쇄물로 묶어낼 만한 수준이 못되고, 화장실에나 들고 가서 읽을 수준의 글을 인쇄하는 데 학과의 명의와 예산을 사용할 만큼 대학원이 발전해 있지도, 살림살이가 풍족하지도 않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을 획득했다고 인

정된 글인 석사논문은 정리해서 공식적인 학술잡지 등에 발표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다가, 그 이전 단계의 만들어지고 있는 글들은 학과의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책을 펴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인데 대학원생들이 요즘 시간이 많은 모양이다, 시간이 있으면 학과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나 더 많이 참여하라>는 요지였다. 두 번째로 예산지원을 신청할 때 우리는 지원희망 금액을 삭감하고 명의를 '인류학과 대학원 자치회'로 하여 학과에 부담이 덜 되도록 제안서를 수정하였는데, 이 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대체로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하였다. 추가된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발표 기회들을 이용하는 일에 게으른 대학원생들에 대한 좀 더 강한 질타와, '자치회'의 명의로 진행되는 사업에 학과가 굳이 어려운 살림을 쪼개가며 지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우리가 일종의 '서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오정 홍길동'에 더 가까운 지도 모르겠다. 석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보장된 발표기회를 이용하고 과정생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데 묶어서 대학원논집으로 내겠다고 우긴 풀이기 때문이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 2.

우리가 대학원 논집을 내기로 하고 그 이름을 <말리서사>로 정한 것은 거의 2년쯤 전의 일이다. 어느 날인가 오후에 회의를 해서 논집을 내기로 결정했고 이어서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를 이야기할 차례였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데다가 모두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녹두거리로 내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논집 제목을 정하기로 하였다. '술을 먹으면 생각이 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 이러한 사태의 전개 방식이 일견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논리적인 장면전환처럼 보이지만 기실 따지고 보면 아무런 내적인 인과관계가 없듯이, <말리서사>라는 제목 또한 다분히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술집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고기가 다 익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기로 하였고, 분명히 낮에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던 한 참가자가 무슨 책에서 읽은 <말리서사>라는 말을 생각해내었으며, 빨리 본격적인 술자리를 시작하고 싶었던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이 생각에 동의함으로써 오늘에 와서 "그런데 말리서사가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시달려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제목을 생각해 낸 죄로 지금 이 글을 써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말리서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는 잘 모른다'라는 것인데, 단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리서사라는 제목으로서 담고자 했던 뜻은 있었다'는 정도일 것 같다.

원래 <말리서사>는 박인환이 해방 후 종로에서 2년 정도 운영한 책가게의 이름이다. 김수영은 같은 이름의 수필에서, '브로드웨이 신사' 또는 '전위시인' 연하던 박인환이 실은 말리서사에서 만나던 사람들로부터 배워들은 재주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다가 말년에 비뚤어지고 만 곡마단 원숭이에 불과하다고 빈정거린 후, 아웃사이더로 남음으로써 자신도 가담하고 있는 賣文·賣名 행위에 대한 구원을 얻기보다는 '코스튬'만 얻어 허명을

쌓으려는 세태(김수영 자신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를 공격한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실은 이 글의 의도는, 말리서사를 빌어서 우리 문단에도 해방 이후에 짧은 시간이라는 했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좌·우의 구별이 없던, 몽마르뜨르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 당시만 해도 글쓰는 사람과 그밖의 예술하는 사람들과 저널리스트들과 그밖의 레이맨들이 인간성을 중심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절이었다. 그 당시는 文名이 있는 소설가 아무개보다는 복쌩<sup>1)</sup>같은 아웃사이드러가 더 무게를 가졌던 시절이고, 예술청년들은 되도록 작품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 당시의 표준을 가지고 재어볼 때 정도를 밟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진정한 아웃사이드러가 몇 사람이나 될까. ... 아웃사이드러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놀 틈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공부할 시간도 놀 장소도 없다. 질식한 아웃사이드러들이다. 죽은 김이석<sup>2)</sup>도 사실은 질식한 아웃사이드러다. ... 그가 생전에 작품발표연월목록까지 만들어놓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가 어느 정도 자기의 문학을 신용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복쌩이 자기의 그림을 신용하지 않은 정도로 이석도 그의 문학을 신용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복쌩이 싸인보드를 그리는 기본으로 이석도 신문소설을 쓴 게 아닌가—이런 생각을 하면 넋을 잃게 된다. 아무튼 나는 복쌩이나 이석을 작품보다도 인간적으로 접근한 데에 더 큰 자랑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가장 정직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문학 이전에 있다.

누가 이 글을 읽고 ‘되도록 작품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예술청년’과 ‘우겨서라도 책을 내려는 우리들’을 대비시킨다면, 나는 그 견해에 대해 ‘기계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러한 반론이 성립할 지 안 할 지는 잘 모르겠다. 반론 성립 여하간에 우리가 김수영의 글에서 채택한 것은, 우리는 말리서사의 시절에 살고 있으며 그래서 말리서사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사오정 홍길동’의 입장에서 원했던 것은 ‘아비를 아버라 하고 형을 형이라 하는 것’이지 ‘호부호형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호부호형을 허락받는 서자’나 무면허 운전자가 아니라 대학원생의 이름으로 나름의 자율적인 학술활동의 결과물인 대학원 논문을 내는 일이었으며, 화장실에서 읽힐지는 몰라도 화장실에서 쓰여진 것은 아닌 그 글들(물론 화장실에

- 1) 김수영에 따르면 그는 박인환의 ‘최면술의 스승’인데, 말리서사의 <말리>를 시집 『군함 말리』에서 따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박인환 자신은 배우에 불과했던 ‘<말리서사>라는 무대를 꾸미고 연출을 하고 프롬프터까지 해가면서 인환에게 대사를 가르쳐주고 몸소 출연을 할 때에는 제일 낮은 어릿광대의 천역을 맡아가지고 나와서 관중과 배우들에게 동시에 시범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의 본업은 싸인보드나 포스터를 그려주는 것이었지만 그가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려던 것은 ‘예술가의 양심과 세상의 허위’였으며, 복쌩 자신은 자기의 작품을 철저히 신용하지 않음으로써 속화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 2) 김수영에 따르면 그는 소심증의 발로였던 차분하고 조용한 소설과 과격한 주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인데, 즉, 자신의 ‘배양토’였던 평양을 버리고 나와 그 뿌리의 흙을 모조리 털고 나니 다시 새 흙에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잃은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간직하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으며, “작가가 취직을 하는 것은 작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직한 친구를 경멸하는 동시에 호구지책 삼아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자신의 소설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서 글의 구상의 일부가 진행되었을 수는 있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것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제한없이 소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자유의 이행이라고 우리는 보았던 것이다.

아마 ‘자유라고?’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은 시나 소설이 아니라 논문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계보와 실증적 근거, 논리적 구성에 있어서의 엄격성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유’에 대한 과대한 망상은 우리를 그릇된 곳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시고 소설이고 평론이고 모든 창작활동은 감정과 꿈을 다루는 것’이라는 김수영의 지적이 인문사회과학에도, 적어도 인류학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머리글을 적고 있는 자의 입장은, 한국의 인류학자들에게는, 또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에는 초보적인 언론자유도 없다고 보는 것인가? 이와 아울러 또 다른 방향에서의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 머리글의 입장은 ‘미분화된 또는 미성숙한 대학원생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발표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모라토리움 안에 숨으려는 것인가? 나는 이 두 문제제기를 ‘문학 이전에(또는 인류학 이전에) 있는 말리서사의 시공간’에 관한 이야기로 피하고자 한다. 김수영이 ‘문학 이전’이라는 말로써 무엇을 뜻하고자 했는지는 문학에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짐작키 어려운데, 앞서 언급한 “시고 소설이고…”하는 지적의 앞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다.

…각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끝에 모 여류시인한테 나는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다고 봅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허, 웃으면서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하는 태연스러운 대답에 나는 내심 어찌 분개를 하였는지 다른 말을 다 잊어버려도 그 말만은 3,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언론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둘 중의 하나가 있을 뿐 <이만하면 언론자유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이 시인도 문학자도 아니라는 말 밖에는 아니 된다. …시고 소설이고 평론이고 모든 창작활동은 감정과 꿈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과 꿈은 현실상의 척도나 규범을 넘어서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상으로는 38선이 있지만 감정이나 꿈에 있어서는 38선이란 타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너무나 초보적인 창작활동의 원칙을 올바르게 이행해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문학을 해본 일이 없고 우리 나라에는 과거 십 수년 동안 문학작품이 없었다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문학작품이 없는 곳에 문학자가 어디 있었겠으며 문학자가 없는 곳에 무슨 문학단체가 있었겠는가.

김수영에게 있어서 ‘문학 이전에 있는 말리서사의 시공간’은, 초보적인 창작활동의 원칙도 올바르게 이행해보지 못한, 문학을 해본 일도 없고 문학작품도 없으며, 그래서 작품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고작인 곳이라는 의미에서 한편으로 부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사실을 미화하지 않고 ‘우리는 문학 이전에 있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만하면>이라며 머물지 않고 조금

이라도 남아 있는 부자유의 조건들과 부딪혀 나가는 것은, 미분화 또는 미성숙의 지표가 아니라 속화하려는 현실에 대한 자유의 추구이며 대안적인 '자랑거리'가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들이 그들의 삶의 시공간인 대학원에서 '자치'와 '자결'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연구활동의 전부일 수 없지만, 그들의 의무인 감정과 꿈에 대한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자유의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계기이지 않을까. 김수영은 자유가 내용이자 형식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자유는 온몸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내용〉이 하는 말이 아니라, 〈형식〉이 하는 혼잣말이다. 이 말은 밖에 대고 해서는 아니될 말이다.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다〉는 〈형식〉을 정복할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간신히 성립된다.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지껄여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껄이는 것이 이룰테면 38선을 뚫는 길인 것이다.

이는 시의 형식의 자유로서 내용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대치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맥락에서 적어진 것이지만, 자유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은 우리의 자치활동에 던지는 울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어차피 공부해서 무슨 대단한 영광을 보려고 대학원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인문사회과학이 처한 현실은 그런 달콤한 약속을 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보았고,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볼 가치가 있고, 그것을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 3.

이제 몇 가지의 작은 이야기를 덧붙이면, 주절주절 써온 머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자유, 자치, 자결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학과에 예산지원을 신청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이지만, 그밖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학과 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선생님들로부터도 인정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에서 '서자' 운운하며 약간 자학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인정을 받고 싶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선생님들께 어려운 학과 살림살이인 줄을 알고 또 화장실에서나 읽힐 글인 줄도 알지만 예산지원을 신청할 것 같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용된 호부호형을 할 것이다. 즉, 홈페이지에도 논집의 내용을 올릴 것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학술잡지에의 발표 기회도 최대한 이용해야 마땅할 줄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종이로의 인쇄를 고집했던 것은, 아직은 전자매체의 이용이 제한된 환경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그것을 온전히 보려면 어차피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

다. 그런 의미에서 인쇄에 대한 고집은, 홈페이지의 거부나 시대적 조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정에 가깝다.

논집의 <특집>은 '인류학자와 개발의 현장들'이라는 주제를 택했다. 이 기획은 원래 99년도 1학기부터 5명의 대학원생이 연달아 발표했다던 콜로퀴엄의 주제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기획의도는, 하나의 현장, 또는 하나의 국가라는 경계선을 넘어 힘을 발휘하는, 즉 복수의 개발의 현장들을 관통하는 개발의 이념 및 그 물질적 전과관계들이 국가 주도의 개발정책을 추진해온 여러 사회들(즉, 개발의 현장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발정책의 의미와 결과, 그 상관관계에 대한 일종의 비교연구—가령, <동아시아의 개발>과 같은—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인류학적인 연구가 주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세계 인류학계에서 일종의 지역적인 마이너리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인류학계를, 개발이라는 연구주제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알콜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기대까지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콜로퀴엄 원고에서 일부는 빠지고 다시 일부가 추가됨으로써 그 구성은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몇 개의 야심적인 글이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글 하나하나에 대한 것 못지 않게 기획 의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그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연구>는 개별적으로 준비된 것들인데, 대학원 콜로퀴엄을 통해 한 차례의 토론을 거친 것들을 중심으로 신고자 하였다. 우리는 개별 원고들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약점을 대학원생 나름의 합리성을 제시함으로써 극복하지는 원칙을 세웠고, 콜로퀴엄에서 토론하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토론문을 쓰게 하여 함께 수록하는 방법으로써 그 원칙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필자들과 기타 대학원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원고에 대해 하나씩 교정을 보고 그렇게 2교를 거침으로써, 활자화 작업이 대학원생들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실무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필드에서>는 개인연구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작성된 귀한 글들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필드를 마치고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거나 혹은 현재 현지조사 중에 쓰여진 것들이다. 아직 학위논문으로 완성된 단계에 있기 전의 글들을 별도의 난을 만들어서 실는 것은 이념으로는 제시되지만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현지조사와 이 과정에서 연구 주제가 다듬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다른 필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이겠지만 특히 논문 준비나 필드 중이라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 준 필자들에게 그 시간만큼의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평>은 나탈리 데이비스의 『마틴 기어의 귀향』을 선택하였다. 여름 방학 동안 석사 00학번은 역사인류학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이 책은 그 교재 중의 하나였으며, 따라서 집필자는 개인이지만 어느 정도의 공동작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집필자는 이 책을 읽고 '체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 저녁마다 땀박질에 나섬으로

씨 대학원에서 한 동안 화제에 오른 바 있다.

<해외논문>은 마커스의 복수의 현장에 대한 민족지(multi-sited ethnography)에 관한 논문을 선택하였다. 이 번역 작업의 결과, 역시 마커스는 글재주가 신통치 않은 자라는 평판을 대학원에서 얻게 되었고 사실 이 논문 역시 요령이 있는 글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특집에서 제시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분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샀다. 복수의 현장의 민족지를 영어권 인류학자들이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번역 후의 소감이지만, 이는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독자들의 몫일 것 같다.

학과 내외의 선생님들, 여러 선배들, 후배를 포함한 동학들로부터 시작하여 감사를 표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일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 마음은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마워해야 할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든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괜히 하는 소리로 들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다.

한 가지만 더, 논집의 제목을 <말리서사>로 정하고도 한참을 더 있다가 거의 논집의 인쇄가 임박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말리서사>의 '말리'라는 것이 자스민을 뜻한다고 한다. 그래서 꼭지글마다 맨 꼬트머리에 말리가 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이 들어가 있다. 그 문양을 찾는 작업을 비롯해서 편집작업의 자잘한 일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쓴 사람은 석사 00학번 김근영 학형이라고 들었다. 그를 비롯해서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고한나, 구기연, 임서정 등 여러 00학번들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주었는데, 다음 <말리서사>에는 이들의 본격적인 데뷔를 기대한다는 말로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